

# 광주 예술가들 미국서 '오월 정신' 알린다

'오월 정신'의 물결이 광주의 광장을 넘어 미국 뉴욕 광장으로 이어진다.

화가, 작곡가, 현대무용가, 연주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예술가 그룹 '잡 아트프로젝트 MSC'가 오는 8월1일부터 10일 뉴욕 유니언 광장과 타임 스퀘어 광장, 퀸스 미술관 앞마당에서 '오월 아리랑-광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출발은 뉴욕이지만, 예술가들은 세계 각국의 광장에서 오월의 정신을 공유하는 꿈도 꾸고 있다. 분단과 통일의 현자인 독일 베를린 광장, 그리고 평양 광장이다. 그곳에서 '오월의 이름'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희망을 갖는다.

광주의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젝트는 드로잉 퍼포먼스와 무용, 음악 연주 등이 어우러진 기획으로 작가들은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배경 삼아 대형 천에 걸개그림 형식의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며 광주 이야기를 전한다. 소녀상 제작과 관련된 '소녀와 나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던 '잡 아트프로젝트'는 '오월 정신의 확장'을 꿈꾸며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무엇보다 '역사는 박제되지 않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명의 영웅보다는 이름 없는 수많은 군중을 기억했던 오월 광주의 평화와 공동체 정신'을 역동적 민주주의 상징인 '광장'에서 펼쳐보인다는 데 프로젝트의 의미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또 '오월광주'의 상징

## 화가·작곡가·현대무용가·연주자 등 '잡 아트프로젝트MSC'

### 8월 뉴욕 유니언 광장 등서 '오월 아리랑-광장 프로젝트'

#### 독일 베를린 광장·평양 광장 등 세계 각국 공연 '부품 꿈'



오는 8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오월 광주 정신'을 알리는 '오월 아리랑-광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잡 아트프로젝트MSC' 회원들.

적 장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의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 아트'를 세계 도시로 넓히는 기획이기도하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릴레이 아트는 시민과 작가들이 대형천(110cm 200cm)에 그림을 그리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주먹밥을 나누며 오월을 이야기해온 기획이다. 오는 26일 '메이피플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릴레이 아트 행사는 영상으로 촬영해 미국 현지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오월 아리랑' 프로젝트에는 주홍, 노정숙, 조인자, 고근호, 조성숙, 주리영, 이선영, 손종협, 김장호, 승지나, 나은영, 한경숙 등 지역 예술인들과 바이올린 연주자 허인선 등 미국 현지 아티스트 등이 참

여하며 승지나 작곡가와 주리영 작가는 지난 3월 뉴욕을 방문, 광장 등을 둘러보며 행사를 준비해왔다.

회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아티스트들의 협업을 추진중이다. 몇년전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페스티벌에서 릴레이 드로잉 작업을 하며 '하나됨'을 느꼈던 회원들은 평화와 공동체 정신이라는 주제를 던진 후 각 지역 작가들에게 "당신 나라의 광장에서 드로잉하는 모습을 찍어 달라"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또 뉴욕 현지에서 자연스레 합류한 세계 시민들의 작품도 함께 영상에 담아 오는 2019년에는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100인의 연대'전도 열 생각이다.

주홍 작가는 "최근의 급변하는 남북 관계로 평양 광장 공연의 꿈에 한발짝 다가선 것 같아 설레인다"며 "뉴욕 현지에서 어떤 작품들이 완성되고 광주의 오월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세계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분된다"고 말했다.

노정숙 작가는 "현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주고 받으며 어떤 스펙타클이 일어날 지 기대가 된다"며 "이번 기획을 통해 민주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오월 정신이 전 세계에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작가들은 현지에서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고근호, 주홍, 노정숙, 조성숙 작가는 7월12~8월15일까지 뉴욕 첼시 K&P갤러리에서 개인전도 개최한다. /김미은기자 mekim@

## 亞문화원 비정규직 81명 정규직 전환

아시아문화원은 도슨트와 문화교육 강사 등 문화원과 간접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인력 8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광주·전남지역 중정부기관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이례적이다. 아시아문화원은 1일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최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간접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파견·용역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전당 전시·체험관 운영인력 65명과 어린이체험관 교육강사 10명, 어린이창작실현실 문화교육가 5명 등 모두 81명이다. 이들은 지난 30일자

로 용역계약이 만료됐으며, 1일자로 아시아문화원에 직접 고용됐다.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은 정년 보장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다.

문화원은 계약 종료기간이 남은 파견직 근로자들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할 방침이다.

아시아문화원은 문화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5년 10월 설립한 중정부기관이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문화전당을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NAVER DdM**

### 포털, 지역 언론 기사 비율 높인다

평화당 정동영 의원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 발의 인터넷 이용자 위치정보 통해 해당지역 기사 제공 의무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편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털사 이에서 지역 언론의 기사 일정 비율 이상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1일 '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언론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다. 또 포털에서 이용자들의 성별이나 연령, 시간대별 조회 수 등의 이용 행태 통계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해 기자들이 이용자 특성에 맞는 양질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PC 기반의 '뉴스 스탠드' 서비스에서 일부 지역 언론의 기사를 위치 기반으로 제공하지만 모바일의 경우 지역 언론 기사를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지방에서는 직

접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에는 포털 모바일을 통해 지역 언론사의 뉴스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사건, 사고나 대형 재난 등 지역의 긴급 뉴스에 대해서도 네이버 등은 현장에서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지역 언론의 기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이 같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균형 관행은 여론 형성에도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뉴스 서비스 불균형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여론을 조성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 의원은 "호남사람이면 호남지역 언론의 기사를 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역 언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동영·김경진·김광수·박지원·윤영일·장병완·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의원, 강창일·노옥래(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장정숙·주승용(이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국내 첫 E형간염 백신 개발 나서

### 보건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사업 선정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는 E형간염 예방용 백신 개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건국대 수의과대, 한국프라임제약 등과 함께 2021년까지 4년간 국비 23억원을 지원받아 E형간염 백신 기술 개발, 비밀상 시험을 진행하고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한다.

E형간염은 주로 바이로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육류를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급성 간염의 일종이다.

그동안 후진국형 질병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유럽에서 매년 20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환자 60여명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E형간염 연구와 정책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에 생물의약연구센터가 E형간염 백신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E형간염 백신개발은 물론, 연관 제약기업을 회수에 유치해 E형간염 분야 국가사업을 전남이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가 바이오분야 유망과제 8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전기획을 지원한 '생물산업 고도화 기획과제 사업'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국내 최초 E형간염 백신 개발과 연관 제약기업 유치 등 E형간염 분야 국가사업을 주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산 식품 중국 공략 나서

### 신안 등 7개 중기 1010만달러 규모 수출 MOU 체결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중국에서 인기몰이에 나섰다.

전남도는 도내 식품 가공업체의 중국 시장 개척활동으로 10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시장 개척활동에는 신안, 영암, 고흥, 완도, 여수 등 전남지역 7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수출업체는 신안 (주)다사랑, 영암 (주)금정전통장류, 고흥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 완도 아들래(주), 여수 (주)엔비로젠, 고흥 (주)정해량, 순천 미르산업이다. 시장 개척단은 장시성 난창, 저장성 원자우, 푸젠성 사면 등 3개 도시에서 합초 가공식품, 꿀, 간장 등 수출 협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합초 가공식품, 모링가 차, 전통 장류 등은 중국 바이어의 관심을 많이 받아 이달 중 전남 방문을 통해 더 구체적인 수

출 상담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성과는 중국 현지의 전남도 상해통상사무소와 (재)전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의 치밀한 사전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 B2B 수출상담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현근 전남도 중국협력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바이어 동향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하겠다"면서 "지난해에는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지만 올해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중국 현지 온-오프라인 판매장 운영, 시장 개척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혈당조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지방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약번호 : 2179239

NAVER 유한바이오펙세생활건강

**010-3598-7080**

##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1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

##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